



원만한 혈당조절, 성기능장애도 예방 당뇨병환자의 35~75%, 발기부전 발병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먹고 살만해진 중년기에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온 당뇨와 그로 인한 성기능장애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자신감을 빼앗아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뇨 8년차인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 구씨는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이다. 8년전 당뇨를 진단받아 식사와 운동을 통해 관리했으나 잘 관리가 되질 않아 약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혈당변화의 기복이 컸고, 당화혈색소가 7.5%나 되었다.

그러나 어느날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다. 발기가 안 되는 것이다. '설마 나에게?' 라는 생각으로 지내왔기에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아내 앞에서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말았다. 결국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봤다. 단순한 성적 쾌락의 의도보다는 그저 그동안 무심했던 아내와의 관계를 회

복하기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시청각 성 자극 발기검사와 혈관검사 등을 실시해보니 말초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신경이 망가졌다고 한다. 이 경우 발기는 물론 사정, 극치감 등 남성의 성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구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의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을 진단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환자에게는 비뇨기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발기부전, 역행성사정, 오르가슴 장애와 방광기능장애, 요실금 등이 그것이다. 성기능장애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성욕저하보다는 발기부전이 초기에 나타난다. 발기부전 외에 가장 흔한 것은 역행성사정으로, 정액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으로 역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남성 당뇨병환자가 꾸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약 50%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나며 성기능장애의 시작도 일반인보다 빠르다. 한 통계를 보면 당뇨병환자의 35~75%가 발기부전을 보이고, 30세에서 15%, 60세에서는 55% 이상의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 합병증도 원인이지만 동맥경화로 인해 음경으로 혈류흐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에게도 성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극도의 성욕부진이나 질경련 등을 제외하면 성관계를 이룰 수 없을 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 남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발기부전은 50대에 잘 나타난다. 위의 구씨의 경우 같이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나 다른 성인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 기질적 원인인 당뇨, 고혈압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자신이 발기부전이란 사실을 창피해해서 주변인에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증상이 와도 병원을 찾지 않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이나 노화에만 국한된 증상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고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4월호에서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알려주는 당뇨와 발기부전을 비롯한 남성·여성 당뇨병환자의 성기능장애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극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성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로 미리 예방하여 더욱 즐거운 중년의 삶을 꾸꾸어 보자.

글/홍지영 기자

